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839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2200-500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6월 19일 (음력 5월 27일) 금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시골마을-기업 '아름다운 상생'

영광 묘량면 주민 "우리마을 입주 고마워"

기업유치 성과금·성금 모아 기념공원 조성

입주기업 "주민들 성의·노력에 큰 감동"

주민 우선 채용·기숙사 건립 등 '보은 약속'

농사일이 전부인 시골 마을의 주민들과 외지 투자기업이 서로 신뢰와 애정을 보내며 아름다운 '상생'(相生)을 일궈가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 기업유치로 화제를 모았던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마을 입구에는 최근 661.16㎡의 작은 공원이 새롭게 생겼다.

공장부지 매매 계약에서 묘지 이장까지 완벽하게 처리한 뒤 합성목재 제조업체를 유치한〈본보 3월20일자 1면 보도〉 주민들이 마을에 처음 들어서는 기업에 대한 고마움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손수 나무를 심고, 가꿔 만든 공원이다. 공원 조성비는 기업유치에 따른 공로로 전남도로부터 받은 1천만 원과 묘량면 각 주민단체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충당했다.

공원 이름은 자신들이 공장부지 토지를 매입해주고 유치해 온 기업의 이름을 딴 '(주)이우드코리아 유치 기념공원'으로 지었다.

묘량면 투자유치위원회 정현용(66) 위원장은 "성과금으로 받은 1천만 원이 시골에선 큰 돈이어서 면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과 주민들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었다"면서 "고민 끝에 마을을 찾아준 '이우드코리아' 로 인해 받은 상금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공원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이나 공장이 들어서려면 주민들이 갖가지 보상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던 반 기업적 정서는 이미 옛말이 된 셈이다.

합성 목재 제조업체인 (주)이우드코리아(대표 이근식·49)는 지난해 4월 강원도 동해시 부평산업단지에 공장 건립을 계획했다가 영광군 투자유치 담당 직원과 주민들의 끈질긴 구애로 인해 지난해 10월 동해시와의 수십억 원 대의 물품 계약도 파기한 채 영광군 묘량면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키로 결정하고, 최근 공장 기공식을 했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묘량면 투자유치위원회는 공장부지 토지매입과 묘지 이장 등을 직접 나서 해결, 3일 만에 부지계약을 끝내 화제를 모았었다.

이근식 대표는 이곳에 애초 1천300㎡의 부지에 1공장을 짓고, 이보다 더 큰 2공장을 경남에 지을 생각이었지만, 주민들의 호응과 관심에 1·2공장 모두를 이곳에 짓기로 했다.

주민들의 노력에 감동한이근식 대표는 지난 2일 열린 기공식에서 주민들에게 세 가지 '보은'(報恩) 약속으로 화답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공장 인력 120명을 충원하며 지역 주민과 자녀의 취업 보장을 다짐했다. 묘량면 주민 또는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다음으로 영광군민 또는 자녀, 3순위로 전남도민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3년 내에 광주시 또는 광주시 인근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 영광군 주민, 나아가 전남지역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주 큰 '선물'도 약속했다.

또 어린이날인 지난 5월5일에는 묘량초등학교를 방문해 수백만 원 상당의 학용품과 체육용품을 기증하고, 올 여름에는 이 학교 전교생 19명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로 1박2일 여행 보낼 계획이다.

이 대표는 "투자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주민들의 성의와 소박한 정(情)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주민과 기업이 동반자가 돼 앞으로 지역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영광군 묘량면 주민들이 조성한 '이우드코리아 유치 기념공원'에서 이근식 (주)이우드코리아 대표(왼쪽부터)와 임교택 묘량면 투자유치부위원장·정현용 투자유치위원장·신광근 영광군청 투자유치담당 직원·이우드코리아 이한식 전무가 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신양파크호텔
여름 웨딩 패키지
뷔페/양식 27,000원 부터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4000

남북 사상 첫 월드컵 동반진출

남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축구 본선 무대에 함께 오르게 됐다. 〈관련기사 19면〉

북한대표팀은 18일 오전 (이하 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킹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8차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0-0으로 비겨 한국(4승4무·승점 16)에 이어 조 2위로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다.

북한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나란히 3승3무2패(승점 12)를 기록했지만 골득실차(북한 +2·사우디아라비아 0)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서 조 2위를 지켰다.

북한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통산 두번째이고, 8강까지 올랐던 지난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44년만이다.

이로써 이미 7회 연속 본선 진출을 확정한 한국에 이어 북한도 월드컵행을 확정지으면서 남북한 축구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의 쾌거를 이뤄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의 경기에서 박지성의 천금같은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8경기 연속 무패(4승4무·승점 16)로 마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교통 무질서 추방" 광주시지역치안협의회는 18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교통 무질서 추방 붐 조성을 위한 범시민선포식'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교통·시민단체 회원 및 운수업체 관계자 2천 여명이 교통 무질서 추방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이병훈 단장 "오월의 문 등 절충안 수용 불가"

광주시의회 별관 토론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문화전당의 건립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절대 다수의 광주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별관 철거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5월 단체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5·18사적지 보존을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오월의 문' 등 절충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18일 오후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옛 도청별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문화전당 설립 계획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공청회, 조성위 심의 등 특별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문화전당 완공시기(2012년) 연장 등에 절대다수 광주시민들이 의견을 모을 경우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단장이 '건립시기가 늦어질 경우 정권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진행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온 것으로 볼 때 이같은 발언은 도청별관 보존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 단장은 "오월의 문, 일부 보존 등 각종 절충안에 대해서도 이미 검토가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전체 설계 콘셉트를 고려할 때 결론은 원형보존이냐 철거냐 둘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문화전당 설계자인 우규승씨도 절충안과 같은 설계 변경은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필요하다면 우규승 설계자도 초청해 얘기를 듣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